



| | |
|-----------------|-------------------------|
| 제목 | 페르시아 : 고대 문명의 역사와 보물 |
| 발행언어 | 한국어 |
| 발행처 | 생각의 나무 |
| 발행일 | 2008. 2. 20. |
| 저자 | Anna Vanzan 송대범 옮김 |
| 출판국가 | 대한민국 |
| 페이지수 | 207 |
| ISBN 또는 ISSN | 978-8984987166 |

내용 요약

아케메네스 왕조와 사산왕조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중앙아시아의 트란숙사니아(Transoxania)까지, 그리고 에게 해에서 인도 아시아 대륙까지 드넓은 영토를 지배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그 지역들에 오늘날까지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예술 흔적을 남겨놓았다. 이 책에서는 이슬람 시대 이전에 이란 고원에서 발달한 문명들의 주요 특징들을 개관하고, 이란 고원 지배자들의 세련된 삶의 방식을 열정적으로 추종한 사람들의 영토들도 살펴보고 있다. 이란 예술의 양식과 기술의 연속성은 서양 예술(특히 고대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과 헬레니즘·아시아의 개념을 이어주는 굳건한 고리를 형성하였다. 무엇보다도 이슬람 이전의 이란 문명을 소개한다는 것은 이란의 위대한 문화적 연속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적 연속성은 선사시대 문명이 번창했던 거대한 사막의 외곽지대인 카산 근처의 시알크 일대를 시작으로 기원전 4000년 후반에서 3000년 초반 엘람 문명을 지나 기원전 2000년 중반 도래한 용맹한 기마전사집단인 아리아인과의 교류, 기원전 9세기 무렵에 이란 고원에 정착한 미디어에 이어 이란 남부 파르스 지역을 지배하던 아케메네스 왕조가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면서 당시 경제생활과 사회생활, 종교, 예술과 건축, 무덤, 조각상과 보석, 언어와 문자 등을 유적과 유물을 통해 시각적으로 문화적 연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글 후반부에는 사산 제국과 이슬람 시대 이전 페르시아의 유산에 대해 다루고 있다.